

# 캠핑장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의도 분석\*

-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Behavior Intention of  
Separating Garbage Discharged in Camping Site:  
Focusing on Interaction Effects in High Order Factor TPB Model

유 광 민\*\* · 김 남 조\*\*\*

Yoo, Kwang-Min · Kim, Nam-Jo

## ABSTRACT

*This study was to seek the management strategy for the separating garbage discharged in camping site,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ub-component constructs in high order factor the TPB model, which deals with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PBC as the concept of multiple variable. High order factor TPB model is the appropriate model to understand behavior intention than the previous TPB model, because high order factor TPB model has a high explanatory power and attitude, subjective norms, PBC is not single construct, but multiple construct variable. And according t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ub-component constructs, perceived difficulty and injunctive norm reduce the impact of instrumental attitudes on behaviour intention. This study suggest that to make low perceived difficulty level and reinforce instrumental attitude is the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of separating garbage discharged intention. In the future research, it need to examine interaction effects using high order factor TPB model for further detail understanding about behavior and intention.*

**핵심용어(Key words) :** 계획행동이론(TPB),

고차요인구조 계획행동이론(High order factor TPB),

쓰레기 분리배출(Separating garbage discharged),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2S1A5A2A03034718)에 의해 수행되었음.

\*\*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연구교수. e-mail: ykm4458@hanmail.net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njkim@hanyang.ac.kr

## I. 서 론

2012년 현재 전국에 500여개 이상의 캠핑장이 운영(한국콘텐츠미디어, 2013)중에 있으며, 캠핑 산업은 2008년에 700억원에서 연평균 30% 내외의 급속한 성장률을 보여 최근에 3000억원 내외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이데일리, 2013.4.17). 이와 같이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캠핑과 같은 여가활동 수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캠핑 여가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캠핑 전문화수준과 제약과의 관계(이영란·김형곤·오치욱, 2013)나 동기에 관한 연구(김홍일·고종보, 2012)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캠핑은 캠핑활동 과정에서 많은 물질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캠핑장 관리자는 캠핑활동으로 인하여 캠핑장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캠핑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이용자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과 같은 친환경적인 소비행동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캠핑장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관광분야에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이하 TPB)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많은 연구를 통해 TPB 모델의 유용성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설명력이 낮다는 문제점들을 보여 왔다(Armitage & Corner, 2001). 이러한 문제는 TPB 모델의 각 변인을 단일 변인으로 다룸으로써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리하여 복수 구성개념 TPB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과 수정 모델이 설명력을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Armitage & Conner, 2001; Conner & McMillan, 1999; Hagger & Chatzisarantis, 2005; Rhodes & Courneya, 2003 등). 그 결과, 복수의 구성 개념으로 다룬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이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Rhodes & Courneya, 2003). 그러나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은 복수의 구성 개념 간에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요구 받고 있다. Conner & McMillan(1999)은 규범을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으로 나눈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PBC와 태도 그리고 태도와 규범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한 회귀모델이 설명력 증가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TPB 모델 연구에서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Kraft, Jostein, Stephen & Rysamb(2005)는 PCB의 하위 구성개념인 인지

된 어려움은 태도의 세부구성개념인 정서적 태도와 상호 영향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한 태도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술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Mowen, 1995, 홍성열, 2008). 이와 같은 하위 변인 간 상호작용의 존재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의존한 행동관리 전략 수행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한 행동의도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위 구성개념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각 변인과 행동의도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행동의도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캠핑장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을 중심으로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세부 하위 구성 개념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캠핑장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의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 고찰

### 1. TPB 모델과 하위구성 개념

Fishbein & Ajzen(1975)의 행위의도모형(behavioral intention model)에 따르면, 행동 의도는 태도나 개인적 요소와 규범적 또는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Marieke de Mooij, 2004:207). 그러나 의지적 통제를 전제로 하는 합리적 행동 이론은 지각된 행동통제가 낮아 행동의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의 개인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범위가 제한된다(이한식·안광호·하영원, 2002:326). Ajzen(1988)에 따르면, 행동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뿐만 아니라 행동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지각, 즉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하 PBC)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홍성열, 2008). 이것은 PBC가 행동결과의 수행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일 경우, 행동 의도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TPB 모델에 따르면, 행동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PBC에 의해 영향 받으며, 행동은 행동의도와 인지된 행동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많은 TPB 연구들에서 각 변인들은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정희진·이계희, 2010; 허향진·김태구, 2008). 그러나 TPB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념들이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 1) PBC

Ajzen(1991)은 의도가 일정할 경우, 인지된 통제가 높아질수록 행동이 수행될 가능성은 증가하며, 통제지각이 실제 행동 통제를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PBC는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Armitage & Conner, 1999). 이러한 PBC에 대한 Ajzen(1991)의 설명은 PBC가 두 가지 기능, 즉, 인지된 통제(perceived control)와 실제 행동의 통제지각을 가진 개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지된 통제는 Bandura(1986)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기술 혹은 능력과 같은 내부 통제에 대한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실제 행동의 통제지각은 행동에 대한 환경적 제약에 대한 Rotter(1966)의 인지된 통제역량(perceived controllability)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Armitage & Conner, 1999). 이러한 관련성은 PBC가 외부적 요인을 더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기 효능감은 PBC와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제공한다(Armitage *et al.*, 2001).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은 자기 효능감은 행동의도 그리고 PBC는 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White, Terry, & Hogg(1994)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연구결과는 자기 효능감과 PBC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Armitage *et al.*, 2001).

Ajzen(1991)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PBC는 전형적으로 행동의 통제정도나 행위수행의 어려움정도(혹은 쉬운)에 대한 물음을 통해 측정하여왔다(Cheung *et al.*, 1999). Sparks, Guthrie & Shepherd(1997)는 인지된 어려움이 초기의 외부적 요인을 더 반영하는 PBC 개념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인지된 어려움과 인지된 통제 간의 차이를 제안하였다. Chan & Cheung(199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된 통제는 행동의도의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어려움은 행동의도를 예측하지 못하였다(Cheung *et al.*, 1999). 이는 인지된 통제와 인지된 어려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PBC가 단일 구성개념인지, 복수의 구성개념인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Hagger & Chatzisarantis, 2005). 동시에 PBC가 내부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자기 효능감과 외부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높은 인지된 어려움과 인지된 통제라는 하위의 구성개념으로 구성 되어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 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행할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믿음이다(Aronson, Willson, & Akert, 1997). 이와 같은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이해는 주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Armitage & Corner(2001)가 수행한 TPB모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태도나 PBC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주관적 규범을 연구모델에서 제외하기도 하고(Armitage, 2001) 다른 설명변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되기도 한다(차동필, 2005).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예측력을 보이는 문제는 주관적 규범이 너무 단순한 구성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TPB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규범 척도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너의 행동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기대할 것으로 생각되는 나의 신념인 규범적 신념과 각 개인이 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순응하려는 순응동기로 구성되어 있다(홍성태, 1994).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규범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구성개념으로 연구모델에 사용하고 있다(Cheung *et al.*, 1999; Kraft *et al.*, 2005). Armitage & Conner(2001)는 주관적 규범의 예측력이 낮은 것은 단일 측정도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범측정 요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Conner & McMillan(1999)은 주관적 규범을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과 유사한 도덕적 규범으로 구분한 바 있다. Rhodes & Courneya(2003)가 수행한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을 명령적(injunctive)규범과 기술적(descriptive)규범으로 구분한 결과, 주관적 규범이 단일 개념구성의 변인이 아니라 두 가지의 구성개념을 지닌 변인으로 밝혀졌다. 명령적 규범은 특정 집단 또는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 용인되는지 또는 용인되지 않는지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기술적 규범은 집단 구성원들이 특정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의 기능을 갖는다(이혜규·백혜진, 2010:104). Cialdini(2003)에 따르면, 명령적 규범은 메시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규범을 처음 인식한 상황이나 시간의 범위를 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술적 규범은 행동결정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한 휴리스틱(heuristic) 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점에 한해 제약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혜규·백혜진, 2010:109).

### 3) 태도

학자마다 태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태도의 구성 요소를 몇 가지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태도측정 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홍성태, 1994). 태도를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로 보는 3분 모형은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2분 모형은 감정적, 인지적 요소로 태도를 이해하는 반면에 단일모형은 감정적 요소만을 태도의 구성요소로 파악한다(김지환, 1992). Ajzen(2000)은 태도를 정서적(예: 즐거운/즐겁지 않은) 그리고 도구적(예: 유익한/해로운)인 두 가지 차원의 구성개념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 바 있다(Rhodes *et al.*, 2003).

TPB 모델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적 차원과 도구적 차원에 해당하는 척도들을 측정항목에 포함하고는 있으나 단일의 구성개념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현정·박종민, 2011; 차동필, 2005; Cheung *et al.*, 1999; Hong *et al.*, 2010; Johnston & White, 2003). 심지어 정서적 요인만을 태도의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Rivis & Sheeran, 2003). 이에 반해 TPB 모델 연구에서 태도를 두 가지 차원의 구성개념으로 다루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태도를 두 가지 구성개념으로 다룬 연구들로는 Rhodes & Courneya(2003)과 Kraft *et al.*(2005), Hagger & Chatzisarantis(2005)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태도는 각기 다른 개념인 정서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Rhodes & Courneya(2003)의 연구결과는 행동 집단에 따라 태도의 두 구성개념이 행동의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Kraft *et al.*(2005) 연구 결과는 행동에 따라 다른 태도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지된 어려움과 태도, 주관적 규범과 태도와의 관계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TPB모델에서 주관적 규범은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 태도는 정서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로, PBC는 효능감과 통제력, 어려움의 하위 구성개념을 가진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TPB모델의 구성 개념인 태도와 인지된 어려움(Kraft *et al.*, 2005)과 규범(Conner & McMillan, 1999; Han, Hsu, & Sheu, 2010) 등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1) 인지된 어려움과 태도

Eagly & Chaiken(1993)에 따르면, PBC는 행동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쳐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Conner & McMillan, 1999). 이는 PBC가 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PBC와 태도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PBC를 두 개 이상의 구성개념으로 다룬 연구들에서, PBC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은 주로 인지된 어려움과 태도와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Chan & Cheung(1998)은 인지된 어려움은 인지된 통제(control)보다 행동을 향한 태도와 더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 차이는 실증적으로 지지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인지된 통제가 혼인 전 성교에 대한 학생들의 의도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였으며, 동시에 인지된 어려움과 태도와의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Kraft *et al.*(2005)은 인지된 어려움은 태도의 하위 요소인 정서적 태도와 상당히 중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Kraft *et al.*(2005)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람직하다는 행동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깨닫는 순간 태도를 바꾼다(Ludwig von Mises, 1996:98). 즉, 관광에서의 친환경적 소비행위라는 행위가 자신의 여가환경의 목적(특히 쾌락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어렵다고 깨닫는 순간, 행동에 대한 태도나 행동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된 어려움은 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2) 태도와 규범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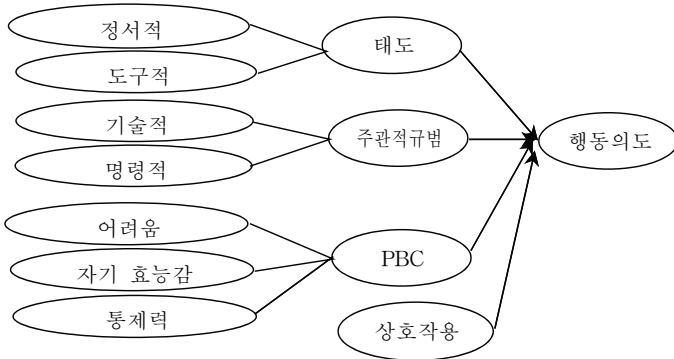
Sherif & Sherif(1953)의 사회규범 이론에 따르면, 태도나 가치 또한 집단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개인의 신념체계는 대부분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다(안상수·김혜숙, 2003:51). 따라서 태도는 사회규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규범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TPB 모델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Conner & McMillan(1999)의 마리화나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도덕적 규범은 태도의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술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행동에서는 규범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규범과 태도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규범이 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김홍범·윤진영·이재형(2012)의 해외 여행에 대한 연구, 황철상(2011)의 스포츠 상품 소비에 관한 연구, Han, Hsu, & Sheu(2010)의 그린호텔 선택에 관한 연구 등의 다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과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는 태도를 정서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로, 주관적 규범을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 PBC를 인지된 어려움, 자기 효능감, 인지된 통제력의 구성 개념을 가진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세부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한 고차요인구조 TPB 연구모델

세부 변인간의 상호작용 중에서, PBC가 태도에 영향을 미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Eagly & Chaiken(1993)의 주장, PBC 중 인지된 어려움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Kraft, Jostein, Stephen & Rysamb, 2005) 그리고 규범은 태도의 효과를 조절한다는 Conner & McMillan(1999)의 주장과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인지된 어려움과 태도(도구적, 정서적) 그리고 규범(기술적, 명령적)과 태도(도구적, 정서적) 세부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2) 인지된 어려움과 태도(정서적, 도구적)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3) 규범(기술적, 명령적)과 태도(정서적, 도구적)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의 3가지 세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연구 과제를 모형화시키면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2. TPB 모델의 측정변수

캠핑장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수정된 TPB 모델연구의 측정변인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

분류	하위분류	번호	측정변인	연구자	
태도	정서적(4)	1	흥미롭다	3 유쾌한 일이다	박현정 · 박종민, 2011; Cheung <i>et al.</i> , 1999; Kim, & Lee, 2011; Kraft <i>et al.</i> , 2005; Rhodes & Courneya, 2003; Ajzen, 2000;
		2	즐거움 일이다.	4 행복한 일이다	
		5	유익한 일이다	8 옳은 일이다.	
		6	가치 있는 일이다	9 도덕적이다.	
	도구적(5)	7	현명한 일이다		
		1	꼭 해야 한다	3 권유한다	
		2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4 찬성할 것이다.	
주관적 규범	명령적 규범(4)	5	주변사람들은 X행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Rhodes & Courneya, 2003; Conner & McMillan, 1999	
		6	내 가족들은 X행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기술적 규범(3)	7	내 친구들은 X행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PBC	어려움(2)	1	쉽게	2 간단하게	Cheung <i>et al.</i> , 1999; Giles <i>et al.</i> , 2004; Kim · Lee, 2011; Kraft <i>et al.</i> , 2005; Rhodes & Courneya, 2003
		3	능력	5 어려움을 극복	
		4	확신	6 능력을 믿음	
	효능감(4)	7	통제	8 나에게 달려있음	
		1	나는 X 행동을 하려고 한다		
		2	나는 X 행동에 동의한다		
		3	나는 X 행동을 수행할 것 같다		
행동의도	4	나는 X 행동을 할 용의가 있다			
	5	나는 X 행동을 할 예정이다			

태도는 정서적 태도와 도구적 태도의 2개의 구성개념으로 구분하고, 정서적 태도는 흥미, 즐거움, 유쾌, 행복의 4가지 측정변인으로, 도구적 태도는 유익, 가치, 현명, 옳음, 도덕의 5가지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명령적 규범

과 기술적 규범의 2개의 구성개념으로 구분하고, 명령적 규범은 '꼭 해야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권유한다, 찬성할 것이다' 4가지로, 기술적 규범은 '주변사람들/ 내친구들/ 가족들은 캠핑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이다' 3가지로 측정하였다. PBC 중 자기 효능감을 능력, 확신, 극복, 믿음의 4가지 변인으로, 인지된 어려움은 용이성, 간단성의 2개 변인으로, 인지된 통제력은 통제가능성, 자아 결정성의 2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행동 의도는 특정행동을 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 정도로 정의된다(Ajzen, 1991; 박현정·박종민, 2011:141 재인용). TPB 모델연구에서 행동 의도는 주로 특정행동 수행에 대한 의도(intend), 의지(will), 수행 가능성(likely)의 3개 내외의 측정항목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Cheung *et al.*, 1999; Conner & McMillian, 1999; Jhonston & White, 2003; Ravis & Sheeran, 2003. 그 밖에 계획(plan)(Park & Kim, 2010), 예정(Chatzisarantis *et al.*, 2004), 동의(박현정·박종민, 2011)가 추가로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행동 의도는 예정, 동의, 계획, 의도, 수행가능성의 5가지로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캠핑경험이 있는 캠핑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와 캠핑장 3곳을 직접 방문(강원도소재 1곳, 경기도 소재 1곳, 서울시내 1곳)하여 조사하였다. 캠핑동호인을 중심으로 인터넷설문조사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고 약 10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캠핑장은 11월에 직접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는 이용자들 전체에 대하여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15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총250부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무성의한 답변 3부를 제거한 2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sup>1)</sup>. 연구과제 1)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고차요인구조형 TPB 모델이 기존 TPB모델보다 우수한 모델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연구과제 2)와 3)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통계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1) 두 설문 집단 간에 도구적 태도와 기술적 규범 이외의 변수에서는 평균의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설문 집단을 통제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통제하지 않은 회귀분석과 영향관계의 차이나 설명력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 IV. 분 석

### 1. 표본특성

표본에 포함된 캠핑객들은 30-40대이며,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가계수입을 가진, 대졸이상의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중심소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이 국내 캠핑이 고학력, 중산층의 새로운 여가문화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2〉 표본의 특성(N:247)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10대	8	회사원	111
	20대	21	자영업	36
	30대	112	전문/관리직	38
	40대	95	주부	29
	50대	9	학생	21
	60대	2	기타	12
가계 수입	200만원이하	19	서울	79
	400만원이하	85	경북대구울산	8
	600만원이하	91	경남부산	10
	800만원이하	26	강원	28
	800만원이상	23	인천	12
학력	무응답	3	거주지	12
	중졸이하	4	경기	93
	고졸	49	전남북광주	3
	대재	8	충남북대전	12
	대졸	152	제주	1
	대학원재이상	33	무응답	1
	무응답	1		

### 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연구과제 1

연구과제 1인 고차요인구조 TPB 연구모델의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TPB 모델을 기준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1차 요인구조모형은 태도, 규범, PBC, 의도, 행동을 각각 단일 요인으로 구분한 것을 의미하며, 고차요인구조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태도

와 규범을 각각 2개의 하위 구성개념을 지닌 변인으로, PBC는 3개의 하위 구성개념을 지닌 변인으로, 의도와 행동은 단일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표 3〉 모형별 설명력 변화량

모형구분	$\chi^2$	df	CFI	AIC	변화량		
					$\chi^2$	df	p
1차요인모형	2182.125	424	0.761	2388.125			
고차요인모형	954	418	0.927	1172.025	1228.125	6	0.000

〈표 4〉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평균/표준편차)	번호	표준적재치	오차	S.E.	C.R.	신뢰도	분산추출지수	
	1	0.89	0.24					
	의도	2	0.90	0.08	0.05	20.03		
	4.377	3	0.95	0.08	0.05	22.73	0.95	0.83
	/0.635	4	0.97	0.16	0.04	24.24		
		5	0.92	0.35	0.05	21.12		
태도	1	0.87	0.08					
	정서태도	2	0.95	0.12	0.05	23.44		
	3.34/0.89	3	0.95	0.23	0.04	23.54	0.96	0.84
		4	0.91	0.20	0.05	21.09		
	3.857	5	0.72	0.37				
/0.659	6	0.86	0.18	0.08	13.71			
	7	0.91	0.22	0.08	14.41	0.94	0.75	
	8	0.93	0.17	0.08	14.75			
	9	0.89	0.29	0.08	14.14			
규범	1	0.77	0.09					
	명령규범	2	0.81	0.14	0.09	12.75		
	4.14/0.67	3	0.73	0.16	0.10	11.59	0.94	0.81
		4	0.81	0.18	0.08	12.91		
	4.090	5	0.82	0.12				
/0.620	6	0.82	0.13	0.06	13.25	0.94	0.83	
	7	0.75	0.14	0.07	12.83			
PBC	1	0.94	0.55					
	어려움	2	0.91	0.11	0.05	20.97	0.84	0.72
	3.80/0.86	3	0.85	0.08				
		4	0.85	0.05	0.06	17.34		
	3.936	5	0.89	0.03	0.05	19.08	0.98	0.93
/0.667	6	0.88	0.07	0.05	18.58			
	7	0.87	0.27					
	8	0.58	0.25	0.09	9.29	0.80	0.68	

〈표 3〉의 분석결과는 1차 요인구조모형보다 고차요인구조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차 요인구조형 모형의  $\chi^2$ 값과 자유도(df)값의 변화량은 물론 CFI(1에 가까워질수록), AIC(적어질수록)의 값 모두에서 유의미한 수준(0.00이하)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CFI 값이 0.927로 분석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각 변수의 표준적재치가 0.5 이상이며, 분산추출지수는 모두 0.6 이상이며, CR값이 모두 0.001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모두 0.8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표 5〉와 같이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 또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PB 모델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PBC를 단일 개념으로 다룬 모델보다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의 설명력이 우수하고, 분석에 적합한 분석모델임을 의미한다.

〈표 5〉 변수간 상관관계

	의도	태도		규범		PBC		통제력
		정서적	도구적	명령적	기술적	어려움	효능감	
의도	1							
정서적태도	0.38	1						
도구적태도	0.54	0.40	1					
명령적규범	0.53	0.29	0.44	1				
기술적규범	0.52	0.33	0.35	0.68	1			
어려움	0.49	0.37	0.26	0.37	0.46	1		
효능감	0.65	0.40	0.36	0.48	0.57	0.76	1	
통제력	0.64	0.37	0.37	0.43	0.48	0.59	0.71	1

### 3.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 연구과제 2와 3

연구과제 2와 3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으로 추론된 변인들의 곱인 상호작용변인을 만든 후, 추가로 상호작용 변인을 회귀시켜야 한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 작용 변인의 관측 값에서 평균값을 뺀 중심화(centering)를 시킨 값을 분석에 활용한다(Agresti & Finlay, 2009)<sup>2)</sup>. 그리고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고,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2) 중심화된 변인값을 투입한 M1에 대한 회귀분석과 변인을 중심화시키지 않은 회귀분석의 각 변인의 회귀계수는 동일하다.

회귀식의 설명된 분산( $R^2$ )의 변화량에 대한 F검증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박영아·현용호, 2010:202). 따라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은 중심화된 값으로 변환한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우선 정서적 태도, 도구적 태도와 기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인지된 어려움, 효능감, 인지된 통제력을 행동의도에 회귀시켰다(〈표 6〉의 M1).

### 1)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에서의 행동의도 영향 분석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표 6〉의 모델 M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도 중에는 도구적 태도만이, 규범 중에서는 명령적 규범만이 그리고 PBC 중에는 인지된 어려움을 제외한 자아효능감과 인지된 통제력만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PBC가 복수의 구성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캠퍼스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의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태도 중에서 도구적 태도 그리고 규범 중에는 명령적 규범, PBC 중에는 자기 효능감, 인지된 통제력 수준을 높이는 행동 관리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은 기존의 TPB 모델의 분석결과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관리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은 각 변인을 단일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TPB 모델보다 설명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행동의도 관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석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인지된 어려움과 태도(정서적, 도구적)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연구과제 2

다음 〈표 6〉은 중심화된 값을 사용하고,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든 모델에서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귀분석 모델 M2부터 M7까지는 각각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모델을 의미한다. M2는 M1에 '인지된 어려움×정서적 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이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Delta R^2=0.007$ ,  $\Delta F=4.374$ ,  $p=0.038$ 로 유의미한 설명력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0.089$ 로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인지된 어려움과 정서적 태도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인지된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서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표 6〉 모델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분석

독립변인	M1	M2	M3	M4	M5	M6	M7
	$\beta(p)$	$\beta(p)$	$\beta(p)$	$\beta(p)$	$\beta(p)$	$\beta(p)$	$\beta(p)$
정서적태도	.021 (.662)	.042 (.385)	.040 (.411)	.031 (.518)	.041 (.395)	.022 (.693)	.038 (.419)
도구적태도	.262 (.000)	.267 (.000)	.251 (.000)	.247 (.000)	.257 (.000)	.214 (.000)	.226 (.000)
명령적규범	.130 (.030)	.128 (.032)	.123 (.038)	.109 (.072)	.130 (.028)	.118 (.045)	.115 (.051)
기술적규범	.051 (.408)	.053 (.382)	.048 (.436)	.060 (.330)	.037 (.543)	.050 (.411)	.058 (.338)
어려움	-.052 (.417)	-.060 (.351)	-.038 (.552)	-.044 (.495)	-.038 (.552)	-.044 (.494)	-.044 (.491)
효능감	.310 (.000)	.309 (.000)	.299 (.000)	.307 (.000)	.291 (.000)	.301 (.000)	.296 (.000)
통제력	.266 (.000)	.253 (.000)	.251 (.000)	.260 (.000)	.266 (.000)	.264 (.000)	.254 (.000)
어려움×정서적태도		-.089 (.038)					
어려움×도구적태도			-.099 (.021)				
정서태도×명령적규범				-.081 (.063)			
정서태도×기술적규범					-.092 (.031)		
도구태도×명령적규범						-.130 (.004)	
도구태도×기술적규범							-.132 (.003)
$\Delta R^2$	0.593	0.007	0.009	0.006	0.008	0.014	0.015
$\Delta F$	49.750	4.374	5.414	3.485	4.698	8.41	9.274
p	0.000	0.038	0.021	0.063	0.031	0.004	0.003

주:  $\beta$ 는 표준화 회귀계수

이러한 영향관계는 M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M3는 '인지된 어려움× 도구적 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이다.  $\Delta R^2=0.009$ ,  $\Delta F=5.414$ ,  $p=0.021$ 로 유의미한 설명력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0.099로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M2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지된 어려움과 도구적 태도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며,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어서 인지된 어려움이 커질수록 도구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지된 어려움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도구적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동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캠핑장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지된 어려움의 수준을 낮추는 관리전략은 도구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도구적 태도가 쓰레기분리 배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킴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도구적 태도×인지된 어려움'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구적 태도×인지된 어려움'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서 가로축은 도구적 태도, 세로축은 행동의도를 나타낸다. 도구적 태도의 값은 평균(M)을 기준으로 +1, -1을 더 한 값이다. 계열1의 가는 실선은 인지된 어려움이 평균보다 1작은 경우이며, 계열2의 굵은 실선은 인지된 어려움이 평균보다 1 큰 경우를 의미한다. 각 회귀 실선은 도구적 태도와 인지된 어려움을 제외한다. 다른 독립 변인들이 모두 평균값을 가질 경우 도구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회귀선을 나타낸다. 이 회귀선들은 인지된 어려움의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도구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도구적 태도의 회귀계수 값)에 차이가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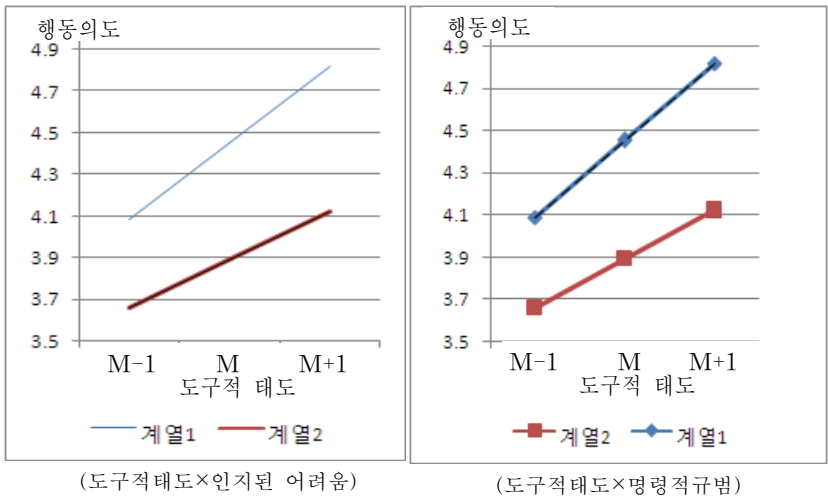
### 3) 규범(기술적, 명령적)과 태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연구과제 3

<표 6>의 M4부터 M7까지는 규범과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모델이다. M4의 '정서적 태도×명령적 규범'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 증가수준이  $p=0.063$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모델에서 모델 설명력과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M4에서 유의수준 0.05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표본이 247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4개의 모델에서 규범과 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태도와 규범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4개 모델 모두에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명령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이 강화될 경우, 도구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규범과 태도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존재와 상호작용 회귀계수가 (-)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 분석결과는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모델 결과에 의존한 행동관리 전략 수립과 비교할 때, 다른 관점의 관리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즉, 규범과 태도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분석모델에서는 도구적 태도와 명령적 규범을 강화시키는 행동관리전략이 효율적인 행동관리전략으로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한 모델의 분석결과는 명령적 규범이 크게 작용할 경우에는 행동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구적 태도의 영향이 감소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에 대한 명령적 규범보다는 도구적 태도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전략이 이용자의 행동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타당성은 '도구적 태도×명령적 규범'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 2>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도구적 태도×명령적 규범'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서 가로축과 세로축과 나머지 조건은 '도구적 태도×인지된 어려움'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과 동일하다. 계열1의 실선은 명령적 규범이 평균보다 1작은 경우이며, 계열2의 실선은 명령적 규범이 평균보다 1 큰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2>는 명령적 규범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도구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도구적 태도의 회귀계수의 값)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www.kei.go.kr <그림 2> 상호작용효과

## V. 결 론

본 연구는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을 활용하여 캠핑장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TPB 모델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그러나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은 세부 구성개념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행동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구성 개념간의 상호 작용효과를 반영한 행동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PBC를 단일 변인으로 취급한 TPB 모델보다는 복수의 구성개념으로 다룬 고차요인구조 모델이 행동의도를 이해하는데 더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차요인구조 모델의 설명력이 높다는 점과 캠핑장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 의도는 태도 중에는 도구적 태도가, 주관적 규범 중에는 명령적 규범이, PBC 중에는 자아 효능감과 인지된 통제력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태도, 주관적 규범, PBC가 단일 개념이 아닌 2개 이상의 복수의 개념으로 구성된 변인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의 분석결과는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즉 도구적 태도, 명령적 규범과 자아 효능감, 인지된 통제력의 수준을 높이는 관리전략이 유효한 전략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변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캠핑장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의도에 대한 관리전략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 준다.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지된 어려움은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구적 태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어려움과 명령적 규범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도구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즉 도구적 태도의 회귀계수 크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결과와 다르게,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교육 등을 통해 인지된 어려움의 수준을 낮추고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이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고 현명하고 옳은 행동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도구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관리전략 또한 유효한 행동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명령적 규범을 강조하는 관리전략은 행동의도에 미치는 도구

적 태도의 영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령적 규범을 강화시키는 전략보다는 도구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중심으로 한 관리전략이 이용자의 행동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캠핑장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행동의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도구적 태도와 PBC(인지된 어려움, 자기 효능감, 인지된 통제력)을 중심으로 한 행동관리 전략 수립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은 기존의 TPB 모델보다 행동의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 변인들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이해를 제공해줌으로써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통제할 보다 효과적인 관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TPB 모델을 이용한 행동의도와 행동에 대한 이해와 행동관리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을 활용하고, 추가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세부 변인간의 상호작용 중 일부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캠핑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설문조사와 캠핑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록 두 집단 간 도구적 태도와 기술적 규범 이외의 변수에서 두 집단의 표본분산이 동질성을 가졌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또한 충분한 분석조건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김지환(1992). 태도와 행동의 관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3, 79-106.
- 김홍범 · 윤진영 · 이재형(2012).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14(1), 67-81.
- 김홍일 · 고종보(2012). 오토캠핑 마니아의 동기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6(5), 199-218.
- 마리케 드 무이(Marieke de Mooij)(2004). *Consumer Behavior and Culture: Consequences for Global Marketing and Advertising*. 『소비자행동과 문화』. 김유경 · 이상훈 · 김병희(역)(2007). 나남신서.

- 박영아·현용호(2010). 고 김수환추기경의 사회적 영향이 관여도와 추모공원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고찰-관여도의 매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9), 189-209.
- 박현정·박종민(2011). 수정계획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한 대학생 금주 행동의도의 사회심리적 예측. 『한국광고홍보학회』, 13(4), 125-154.
- 안상수·김혜숙(2003).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양성평등 정책 및 내현적 성편견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51-75.
- 이영란·김형곤·오치옥(2013). 캠핑전문화수준에 따른 제약요인인식과 제약협상전략의 차이. 『관광학연구』, 37(2), 213-232.
- 이한식·안광호·하영원(2002). 『소비자 행동-마케팅전략적 접근』. 법문사.
- 이혜규·백혜진(2010). 흡연환경이 규범 소구 금연광고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규범적 행동의 초점이론과 규범 현저성.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2), 99-128.
- 정희진·이계희(2010). 신한류가 일본과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계획행동모형을 근거한 관여의 조절역할에 대한 탐색. 『관광학연구』, 34(6), 249-270.
- 차동필(2005). 폭음행위 이해: 계획행동이론의 적용과 확장. 『한국언론학보』, 49(3), 346-372.
- 허향진·김태구(2008). HIS 이용의도와 이용행동의 예측과 이해를 위한 비교우위경쟁이론모형판별. 『관광학연구』, 32(1), 187-208.
- 홍성열(2008). 『사회심리학』. (주)시그마프레스.
- 황철상(2011). 스포츠 상품소비자의 사회규범의 일치성과 준거집단의 기준이 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1), 651-658
- 한국콘텐츠미디어(2013). 『전국캠핑산업지도』. (주)한국콘텐츠미디어.
- Ajzen, I.(1988). *Attitude, Personality, and Behavior*. Straford,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_\_\_\_\_ (2000). Construction of a standard questionnaire fo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http://www-unix.oit.umass.edu/~ajzen/>[Retrieved 20 November 2000].
- Agresti, A., & Finlay, B.(2009).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Prentice Hall.
- Aronson, E., Willson, T. D., & Akert, R. M.(1997). *Social Psychology*. Longman.
- Armitage, C. K., & Conner, M.(199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ssessment of predictive validity and 'perceived control'.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35-54.

- Armitage, C. J., & Conner, M.(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sis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Chatzisarantis, N. L. D., Hagger, M. S., Smith, B., & Phoenix, C.(2004). The influences of continuation intentions on execution of social behaviour with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 551-83.
- Cheung, S. F., Chan, D. K.-S., & Wong, Z. S.-Y.(1999). Reexami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understanding wastepaper recycling. *Environment and Behavior*, 31(5), 587-612.
- Chan, D., & Cheung, S. F.(1998). An examination of premarital sexual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in Hong Kong. *Psychology and Health*, 13, 805-821.
- Conner, M., & McMillan, B.(1999). Interaction effect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Studying cannabis us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195-222.
- Eagly, A. H., & Chaiken, S.(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Hagger, M. S., & Chatzisarantis, N. L. D.(2005). First- and higher-order models of attitudes, normative influence, and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513-35.
- Han, H., Hsu, L.(Jane), & Sheu, C.(201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green hotel choice: Tes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riendly activities. *Tourism Management*, 31, 325-334.
- Hong, K., Gittelsohn, J., & Jung, H.(2010). Determinants of custom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 Korean restaurant health promotion program: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5(2), 174-182.
- Johnston, K. L., & White, K. M.(2003). Binge-drinking: A test of the role of group norm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18(1), 63-77.

- Kim, W., & Lee, G.(2011). Understanding behavior intentions of tourists - incorporating a visitor's place of origin into the TPB model -. 『관광연구』, 26(3). 89-111.
- Kraft, P., Jostein, R., Stephen, S., & Røysamb, E.(2005). Perceived difficulty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or affective attitud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479-496.
- Mowen, J. C.(1995). *Consumer Behavior*. Prentice-Hall.
- Rhodes, R. E., & Courneya, K. S.(2003). Investigating multiple component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control: An examin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in the exercise domain.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 129-146.
- Rivis, A., & Sheeran, P.(2003). Social influence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vidence for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rototypes and young people's exercise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18(5), 567-583.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 (whole no. 609), 1-28.
- Sherif, M., & Sherif, C. W.(1953). *Group in Harmony and Tension*. New York: Harper.

2013년 5월 9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3년 6월 20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3년 7월 2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